

품명	진공펌프			
HS code	8414.10			
상대국 수입관세율 (%)	MFN(24)	AK	VK	RCEP
	10	0	0	0



▶ 해당 품목의 對베 수출증감률은 18년부터 22년까지 등락을 반복한 후, 23년을 기준으로 전년 대비 수출증감률이 316.4%로 대폭 상승함

한국의 연도별 對베 수출동향(HS code 8414.10)

(단위 : 천불, %)

연도	수출금액	수출증감률
2018	5,849	-77.7
2019	3,248	-44.5
2020	4,488	38.2
2021	2,211	-50.7
2022	5,748	160.0
2022.12	5,748	160.0
2023.12	23,932	316.4

▶ 진공 펌프는 전자, 자동차, 반도체, 의약품 등 다양한 제품을 제조하는데 있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, 베트남은 제조 및 가공산업의 비중이 높은 국가로 해당 품목의 對한 수입이 증가하여 동 품목을 선정함

▶ “진공펌프 (HS 8414.10)”의 對베 수출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, 특히 23년 12월 기준 전년 대비 “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(HS 8414.10-9020)”의 수출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함

한국의 연도별 對베 수출동향(HS code 8414.10 세부품목)

(단위 : 천불, %)

구분	HSK	품목명	수출금액		
			2021	2022	2023
		총계	2,211	5,749	23,932
1	8414101000	항공기용	0	0	8
2	8414109010	반도체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	44	140	78
3	8414109020	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	15	2,091	18,526
4	8414109090	기타	2,152	3,518	5,32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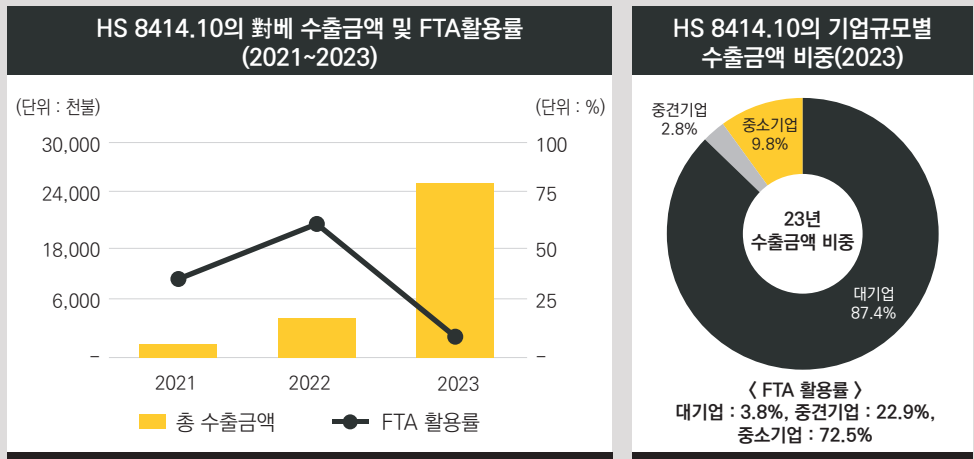
▶ HS 8414.10(진공펌프) 對베 수출 금액은 증가하였으나 FTA 활용률은 22년대비 큰 폭으로 감소함

- FTA 활용률 21년 36.6%, 22년 61.4%, 23년 10.6%로 나타남
- 해당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(PSR)은 CTSH or RVC 40%임

▶ 23년 기준, HS 8414.10 기업규모별 수출금액 비중은 대기업 87.4%, 중견기업 2.8%, 중소기업 9.8%임

- FTA 활용률은 대기업 3.8%, 중견기업 22.9%, 중소기업 72.5% 임

수출금액
및 FTA
활용현황
(HS 6)



베트남
수입
동향

- ▶ 22년 기준 베트남의 HS 8414.10의 주요 수입국은 중국, 한국, 일본, 대만, 독일 등의 순으로 나타남
 - 10대 수입국 동향을 살펴보면 중국(54.7%)에서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으며, 한국(17.7%), 일본(8.0%), 대만(5.6%), 독일(5.1%) 등의 국가 순으로 수입하고 있음
 - * 22년 기준 우리나라는 2위 수입국임

특이
사항

- ▶ 미-중 갈등으로 인해 중국을 대체하는 제조업 기지로 베트남이 부상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의 베트남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베트남 현지에서 생산공장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
 - 베트남에는 국내외 주요 스마트폰 및 반도체 제조회사들의 생산시설이 다수 위치하고 있고 선정품목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필수적인 장비로 해당품목의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
- ▶ 진공펌프 제조에는 높은 기술 수준이 요구되며 기업들은 특히 기술을 통한 독점이 가능함
 - 진공펌프의 개성화와 다양화가 지향되고 있는 오늘날, 국내 기업들은 품질, 성능 면에서 고유의 기술력을 가지고 종합적인 경쟁력강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임

시사점

- ▶ 선정품목의 한-베 FTA 특혜관세율 0%, 한-아세안 FTA 특혜관세율 0%, RCEP 특혜관세율 0%, MFN은 10%로 특혜관세율 적용이 유리한 품목임
 - FTA 특혜관세 활용 혜택이 10% 있는 품목임
 - 베트남의 주요 수입국인 대만(FTA 미체결)과 독일(EVFTA: 1.6%)보다 우리나라의 FTA 활용 혜택이 더 높음
- ▶ 새로운 제조업 허브 및 공급망 기지로 부상하고 있는 베트남 시장의 경우, 제조업에 사용되는 필수적 장비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임,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FTA 활용을 통한 가격경쟁력 개선으로 베트남 시장 확대가 필요한 시기임